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카야마현

의료 압박 경고

오카야마현내에서는 10월 하순 이후 감염이 확산하여 병상 사용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연시는 귀성 등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감염자가 더욱 증가하여 발열 외래·구급 외래에 많은 환자가 몰려 위증증 위험이 높은 분이 바로 진료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카야마현 의료 압박 경고」를 발령하여 현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사업자 여러분에게 다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의 철저나 적절한 진료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